

국내 주거수준 외국보다 열악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200호로 세계 주요 53개국 가운데 하위에서 다섯번째로 나타난 반면 주택당 가구수는 2위, 소득대비 집값은 6위로 조사됐다.

권오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주거수준과 향후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주택재고가 부족하고 가격도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1992년 유엔 해비타트와 세계은행이 세계 주요 53개국의 수도와 주요도시 주거

주택규모는 90년 기준으로 세계평균이 18.5평이며 선진국은 22.7평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같은해 23.5평으로 53개 국가 가운데 8위였으며 95년에는 25.1평으로 더욱 증가했다.

1㎡당 건축비용은 세계평균이 428달러이며 선진국은 749달러로 개도국(142달러)보다 5.2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617달러로 세계11위 수준이며 홍콩(641달러), 캐나다(608달러)와 비슷한 실정이다.

연간 소득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세계평균이 4.2배였지만 우리나라는 90년 9.3배에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90년을 기준으로 세계 평균이 280호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은 90년 140호에서 지난해말 200호로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세계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수준을 조사해 지난해 말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990년과 2000년의 국내 주거수준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90년을 기준으로 세계 평균이 280호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은 90년 140호에서 지난해말 200호로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세계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주택당 가구수도 10년전 세계 평균이 1.1가구였으나 우리나라는 1.9가구로 짐바브웨(2.1가구)에 이어 세계 2위였고 지난해 1.6가구로 낮아졌지만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지난해 7.9배를 기록해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구 소득에 대한 임대료 비율(RIR) 역시 세계 평균이 15.8%, 선진국 18%였지만 우리나라는 10년전 35.2%로 싱가포르(37.7%)와 멕시코(36.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고 지난해에는 23.1%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권 연구위원은 “지난 10년 동안 상당한 주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거사정은 아직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건설산업 건설화와 주택금융 발전,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